



문화적 기억, 신화와 한국연극

Cultural Memories, Mythology, and Korean Theater

저자 (Authors)	양세라 Yang Sei Ra
출처 (Source)	한국예술연구 , (34), 2021.12, 319-329 (11 pages) The Korean Journal of Arts Studies , (34), 2021.12, 319-329 (11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Korean Research Center For The Art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672953
APA Style	양세라 (2021). 문화적 기억, 신화와 한국연극. 한국예술연구, (34), 319-32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2/17 13:2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문화적 기억, 신화와 한국연극

양세라*

김성희, 『연극으로 사유하는 한국신화』(서울: 연극과인간, 2021, 449쪽, ISBN 9788957867891 93680)

1. 꿈꾸며 사유하는 시대의 신화(神話)

인류는 상상력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풍요로운 문화사를 만들 수 있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가 다양한 매체로 넘나들면서 표현되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익숙한 ‘컨버전스(convergence)’ 문화시대를 살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일어난 상황을 잘 짜인 스토리로 다양한 감각에 실어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고대부터 전승되어온 인류의 담화 예술 혹은 기술¹⁾이 주목받는 시대에 사는 셈이다. 스토리텔링의 역할과 가치가 단순히 기술적인 사회문화현상 때문에 주목받는 것은 아닐 것이다. 덴마크 코펜하겐 미래과학연구소에서는 미래 사회를 몽상 사회(dream society)로 예측했다. 이 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접하는 문화에 의해 꿈을 꾸는데, 꿈 역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처럼 이야기를 언어적인 영역과 시각적인 영역(visual storytelling), 청각적인 영역(audiostorytelling)으로 친숙하게 연결한다는 점에서 이야기와 신화를 매개로 한 동시대 스토리텔링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자 미디어의 메타포로 우리 일상에 적극적으로 개

*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국어국문학과 시간강사

1) Stephen Denning, 안진환 옮김, 『스토리텔링으로 성공하라』, 을유문화사, 2005, 15-16쪽.

입하고 있다. 우리는 많은 신화적 스토리텔링이 문학적 혹은 문화적으로 그리고 수용자들의 놀이적 스토리텔링 영역에까지 개입하고 각색되어 다양한 매체로 탄생하는 현장을 목도 한다.

21세기 문화에서 미래까지 신화는 현대인에게 삶의 본질이나 내면을 그리는 이야기의 원형으로서 익숙한 콘텐츠라는 점을 다시 생각해 본다. 『연극으로 사유하는 한국신화』는 그런 점에서 동시대를 재인식하는 흥미로운 이야기 틀을 제공한다. 이 저서는 필자에게 신화가 연극이라는 문화적 형식으로 전환된 흔적을 잘 선별하여 지금-여기의 문화적 기억의 통로를 안내했다. 김성희는 『연극으로 사유하는 한국신화』 서두에서 유발 하라리와 인식을 같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신화는 협력하는 인류공동체가 만들어낸 스토리텔링과 상상력의 결과이자 인간의 문명역사와 집단무의식, 세계를 인식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역사, 심리학, 사회학, 문학, 연극, 매체 등을 통해 신화를 이해하고, 다시 한국 신화가 연극과 상호 소통하는 우리사회에서 문화적 기억의 흔적들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이 책을 통해 저자는 한국 신화로 문화적 메타포이자 세계를 인식하고 창조하는 동시대 한국연극에서 창의적 사유의 궤적을 기술할 수 있었다. 이 저서는 한국연극에서 기존의 신화를 수용하거나 변형시킨 극작가와 연출가, 극단과 배우와 함께 연극텍스트를 만들었던 다양하고 방대한 사례들을 근거로 구성되었다. 이런 구성은 저자의 오랜 관심과 성찰로 실행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덕분에 『연극으로 사유하는 한국신화』에서 신화적 스토리텔링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시대정서와 사유의 흐름에 대한 조연과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연극으로 사유하는 한국신화』 독서과정은 신화를 매개로 우리사회 문화의 흔적을 따라가 보는 과정과 같았다. 필자는 그 과정에서 한국연극과 관객의 사유기반이 창의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토양들을 발견했는데, 이 토양들은 일종의 문화적 기억형식인 신화 덕분인 것이다. 『연극으로 사유하는 한국신화』는 그런 점에서 우리시대 문화적 기억형식에 대해 기술한 성과도 더불어 보여준다.

2. 연극적 사유와 신화적 스토리텔링

이제 『연극으로 사유하는 한국신화』 이 저서의 미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고 싶다. 이 저서는 한국연극과 신화가 상호텍스트적으로 작용한 결과 다채로운 연극문화 콘텐츠를 생산한 궤적을 보여준다. 이는 연극적, 신화비평적, 심리적으로 독해한 저자의 신화와 연극 독해 결과이기도 하다. 인류는 연극적으로 사유하고 정서를 교류하는 것에 익숙하다. 그런 맥락에서 『연극으로 사유하는 한국 신화』는 신화적 스토리텔링으로 창작된 연극을 통해 우리사회에 공존하는 다양한 사유방식과 사유주체의 풍부한 경험들에 대한 인류학적 보고서의 기능도 했다고 본다.

어떤 사람이나 집단, 사회의 고유한 특성은 그 사회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정리 조합된 계기가 있기 때문에 형성된다. 어빙 고프만은 일상에서 인간은 연극적 의례를 통해 감수성이나 자아감정, 긍지, 명예, 위엄, 매력 등 유효한 상호작용을 형성하고 유지하려 한다고 말한다²⁾. 『연극으로 사유하는 한국신화』 이 저서는 그런 사례를 잘 보여준다.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 보면, 인류는 한 사회에서 문화 구성원들의 삶을 하나의 연극(theater)처럼 포착해 그 문화를 해독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 더, 인간의 사회-문화적 삶의 주요 계기들을 ‘사회극’으로 보고, 그 삶의 내용을 ‘이야기’로 해독하여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을 탐구했던 빅터 터너는 연극을 인식 체계이자 방식으로 보았다. 필자가 어빙고프만과 빅터 터너의 사유체계를 되새겨 본 이유는 신화의 현재화가 동시대인의 일상적 삶에도 여전히 신화적 구조를 매개로 사유와 인식의 구조로 작동한 점을 김성희의 저작이 보여주기 때문이다. 저자는 한국 신화를 모티브로 한 연극작품들을 통해 신화적 사유와 상상력이 인간존재의 불멸의 감각인 도덕적, 영적 전통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고 본다.

영웅이 사라진 현대에 영웅신화를 차용한 작품들이 엄청난 호소력을 지닐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왜소한 삶에 대한 공허감과 부조리한 현실세계의 개선 가능성에

2) Erving Goffman, 진수미 옮김, 『상호작용 의례대면 행동에 관한 에세이』, 아카넷, 2008, 55-57쪽.

대한 소망 때문이다.³⁾

신화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적 맥락과 시대정신과 접속하여 매번 다시 쓰여진다. 저자는 신성과 존재의 근원에 대한 감수성을 상실한 현대인이 신화의 정신을 현재적 관점과 현실인식으로 다시쓰기 한 연극을 통해 삶의 근원적 문제를 돌아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김성희는 『연극으로 사유하는 한국신화』에서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현대인의 사유를 풍요롭게 한 연극의 사례와 신화 다시 쓰기인 동시대 한국연극의 궤적을 이 저서에 기술할 수 있었다.

저자는 오랜 기간 동시대 한국연극에 반영된 신화적 상상력과 신화 다시쓰기 방식을 관심 갖고 연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안다. 그 결과 이 저서에는 신화를 모티브로 한 연극과 신화 다시쓰기, 신화적 사유와 상상력으로 쓴 20여 편의 연극 작품 뿐만 아니라 TV드라마, 뮤지컬까지 망라하여 스토리텔링의 원형콘텐츠로서 신화의 역할과 우리시대 사회문화의 현실을 이해하고 말하는 방식으로서 신화의 의미작용에 대해 서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전에 저자가 신화 다시쓰기 방식과 의미구조를 고찰했던 연구에서 신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연극을 주로 살펴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의 대립, 순수했던 과거와 타락한 현재의 대립 같은 상징의 축을 따라 서사가 전개되는 이 극의 매혹과 호소력은 원형적 삶이나 인간성을 상징과 이미지의 언어로 그려내는 신화적 상상력에 기반하고 있다. 순수하고 행복했던 과거(유년)의 추억과 환상을 간직한 채, 부서지고 추락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쓰러진 그들의 삶은 모든 관객들의 근원적인 모습인 양, 마치 자신의 삶을 보는듯한 폭넓은 공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시공을 초월한 원형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경험과 감각, 심층정서나 무의식의 층위에 울려오는 반복적 삶의 리듬감, 이것이 신화의 힘이라 할 것이다.⁴⁾

저자 김성희는 다양한 신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과 신화적 사유와 상상력으로 쓴 작품들이 “온 인류,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태적 존재론과 우주적 유대

3) 김성희, 『연극으로 사유하는 한국신화』, 연극과인간, 2021, 499쪽.

4) 김성희, 「신화적 상상력과 연극성의 놀이 <처의 감각>」, 『연극평론』89호, 한국연극평론가협회, 2018, 49쪽.

감을 안겨준다”⁵⁾고 말한다. 저자의 관심은 『연극으로 사유하는 한국신화』에서 ‘현대인의 삶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이야기인 신화의 가치를 전달한 한국연극에 집중했다. 신화는 기원을 알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공동체 집단의 문화적 기억을 반영한 형식이자 스토리텔링 공간이다. 『연극으로 사유하는 한국신화』는 문화적 기억을 스토리텔링한 공간이자 형식인 신화가 연극으로 재구성되며 현대인의 삶의 비전, 미래 운명에 대한 통찰까지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려 한다.

3. 한국신화의 저장소 한국연극

『연극으로 사유하는 한국신화』는 “한국신화, 연극과 만나다”라는 제목의 1부와 2부 “『삼국유사』, 연극과 만나다”로 크게 2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한국 신화의 다양한 범위와 연극의 상호텍스트적 창작을, 2부는 『삼국유사』라는 특정 신화텍스트와 연극의 창작관계를 조망했다. 먼저, 1부는 스토리텔링의 원형 콘텐츠인 신화의 보편적 테마를 중심으로 7가지 주제의 신화를 모티브로 구성된 한국연극을 비교 서술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신화는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오래된 이야기이자 신성성을 가진 이야기로, 신화의 철학적 가치에 주목하였다.

신화가 삶의 여정이자 통과의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처럼,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겪어나가는 주요한 문제를 ‘존재, 성장, 탐색, 사랑, 시련, 죽음, 순환’이라는 7가지로 설정하고, 신화와 연극이 이 주제를 어떻게 각각 다루고 있는지 그 상상력과 이야기의 변용에 초점을 맞추면서 신화 비평적, 심리적, 연극적 독해를 해 나갈 것이다⁶⁾.

1부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신화들과 그 주제나 스토리텔링의 보편성을 철학적 가치로 유형화하면서 한국 신화와 유사한 철학적 사유체계를 발견하고, 세계 여

5) 김성희, 앞의 책, 407쪽.

6) 김성희, 앞의 글, 19쪽.

러 나라의 신화(이야기)를 비교하기도 한다. 이 방식은 기존의 신화학 연구에 영
향받은 부분이 분명 있다. 그러나 인간 삶의 7가지 존재론적 성찰과 사유로 재
창작된 신화와 한국연극의 상호관계에 질서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신화
체계나 해석과 다르다. 이 점은 이 저서가 자주 동시대 관객이 요구하는 결핍된
정신과 정서에 대한 근본적인 사유의 틀로 신화와 연극의 조합을 보여주려 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독자들의 기대를 헤치지 않는 선에서 이 저서의 내
용과 구조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다. 연극의 원형 이야기인 신화의 섬세하고
풍부함은 다른 독자들이 경험하길 바란다.

『연극으로 사유하는 한국 신화』 1부는 앞서 인용한 것처럼 7개의 인간 삶의 7
가지 상황을 일종의 통과의례의 순차적 진행처럼 구성되었다. 1장은 세계의 대표
적인 창조신화의 개요와 한국의 인본주의적 신화를 비교하며 서술이 시작된다.
이 저서에서 1장은 한국 신화 개요와 캐릭터, 서사구조를 창조신화로 선별하여
서술한 부분이다. 저자가 선별한 창조신화는 연극을 통해 ‘존재’에 대한 성찰과
사유가 실행된 우리시대 문화적 기억형식이다. 이렇게 1부는 각 장마다 하나의 원
형신화 유형과 대표적 한국 신화, 그리고 신화를 현재적 의미로 사유할 수 있는
연극 두 편을 연결하여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을 비교하며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인간 삶에 대한 사유구조 틀로 이 책은 6개의 내용을 구성했다. 이 6개의
신화적 사유구조 틀은 ‘가부장제 신화-성장-주체적 인식’, ‘영웅여정 신화-탐색-내면
통찰’, ‘사랑신화-사랑-문화인식’, ‘가족신화-시련-치유’, ‘영생신화-죽음-현대사회의
욕망’, ‘순환신화-초월적 순환’이라는 6개의 패턴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각 장은
주제에 맞는 보편신화라는 점에서 다양한 민족과 국가의 신화와 한국 신화를 병치
하여 개괄한다. 이에 대한 저자 김성희의 서술은 신화와 연극이 이 주제를 어떻게
각각 다루고 있는지 그 상상력과 이야기 변용에 주목하여 비교 문화적으로 접근한
것임을 밝혔다. 이 사유체계 안에서 일정한 한국 신화의 유형적 계보를 파악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서는 개별적 신화세계의 이해를 돕는 가이드 역할도 수행하
고 있다.

무엇보다 김성희의 저서는 보편적 신화 유형 안에서 동시대 다양한 한국연극
을 재인식하는 동기를 제공한다. 더불어 『연극으로 사유하는 한국신화』의 서술
구조를 통해 원형신화와 한국 신화, 원형신화를 현재화한 연극으로 신화를 스토

리텔링하는 유형과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연극으로 사유하는 한국신화』를 구성하는 이 구조가 신화와 연극 관계뿐만 아니라, 신화라는 문화적 기억을 연극예술로 구성하는 극작법을 명시(明視)해주며, 우리시대 연극이 신화라는 원형 이야기 저장소 역할을 한 예술현상을 제시(提示)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이상 개괄적으로 『연극으로 사유하는 한국 신화』가 구성된 방식을 보면, 한국 신화를 문화원형으로 재구성한 연극을 중심으로 한국 신화의 계보 혹은 유형지도를 그린 저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 국립극단 기획 삼국유사 프로젝트(2012, 2014)의 가치

『연극으로 사유하는 한국 신화』 2부는 구체적으로 단일한 신화 텍스트와 연극 창작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2부는 『삼국유사』 신화 텍스트 안에서 각 신화가 어떻게 조합되어 하나의 의미 체계를 이루는가 하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한국 신화의 원형을 기록한 『삼국유사』와 한국연극의 상호관계를 다루기 때문이다. 앞서 1부가 신화의 보편적 서사구조를 스토리텔링한 한국연극에 대한 것이라면, 2부는 한국의 원형신화인 『삼국유사』를 모티브로 재창작한 연극과 프로젝트연극을 통해 한국사회의 집단 정체성, 혹은 문화적 기억과 정서에 대한 것을 다룬다. 저자는 2부를 부제 ‘신화적 상상력과 이야기의 보고’로 『삼국유사』를 규정하며 시작한다. 그 이유를 저자는 『삼국유사』가 신화적 상상력과 이야기의 보고이기에 이 신화를 모티브로 재창작한 현대연극을 따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고 밝혔다⁷⁾. 2부는 동시대 연극이 『삼국유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집단적 기억과 역사적 경험, 그 안에 집적되어 있는 문화적 기원과 상징적 표상을 현대적으로 재코드화한 방식과 현상을 집중해 볼 수 있다⁸⁾.

『연극으로 사유하는 한국신화』 1부에서 신화를 개별적으로 연극으로 창작한 사례들로 기술했다면, 2부는 그와 다르다. 2부는 『삼국유사』의 신화(설화)를 현대

7) 김성희, 앞의 책, 296쪽.

8) 같은 곳.

의 이야기로 재창작하고 현대의 삶에 보편적 질문을 던지고자 한 구체적인 연극 프로젝트를 사례로 논의를 전개한다. 저자는 의욕적이고도 체계적인 ‘삼국유사 프로젝트 공연의 연극작품들을 중심으로 신화와 연극의 관계, 고대와 현대의 소통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그 의의를 밝힌다.

인간이 추구하는 목표이자 인생의 본질을 보여주는 7가지 주제 ‘아름다움, 조화, 욕망, 꿈, 이상, 관용, 권력’을 다룬 신화와 연극을 선택하여 신화와 연극의 내용과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신화의 현대적 재창작은 ‘우리가 지금, 왜 신화를 읽는가에 대한 답이다. 또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는 사유이기도 하다.’⁹⁾

저자는 『삼국유사』의 역사와 신화, 환상이 결합한 이야기로 신화적 사유가 현대의 일상 삶에도 존재하고, 신화의 구조가 일상에도 현현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인식은 과학적 객관적 사고와 다른 시적 상상력이자 직관의 사고이다. 여기서 신화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오래된 ‘현재’라고 말한 신현숙이 설명하던 신화 세계관을 떠올려 보게 된다. 그리고 이 신화에 대한 인식이 김성희의 저서에도 이어져 공유되고 지속되는 점을 발견하며, 새삼 두 연구자의 연대를 발견한다. 신현숙의 경우도 인류의 시적 상상력의 원형에 주목하여, 연극과 신화의 화학작용이 만든 사유들의 필요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신화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재생이 가능하고 수용자의 지시세계에 합당하게 옮겨질 수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다. 신화는 ‘민중 사이에서 구전된 신성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전승 과정에서 동일한 신화라 할지라도 시대와 주어진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재구성되고 달리 표현될 수 있다. 또한, 신화는 문화의 변천과 함께 부침을 되풀이하며 재귀(再歸)한다.¹⁰⁾

신현숙은 ‘살아있는 신화’로서 신화를 재창작할 경우 동시대에 적합한 주제 의식을 정하고, 나아가 21세기의 수용자(관객)들을 위해 무엇을 부각할 것인가를

9) 같은 책, 299쪽.

10) 신현숙, 「신화와 공연예술(1) -신화 재창작과 소재 탐구-」, 『연극평론』 78호, 한국연극평론가협회, 2015, 134쪽.

고민할 필요성을 고민했다. 동시대 신화에 대한 신현숙의 문제제기와 공감한 흔적은 『연극으로 사유하는 한국 신화』 2부에서 김성희의 신화적 사유 안에 공존하기에 그 울림이 크고 깊다.

1부보다 2부는 연극성, 공연성 등 신화의 재코딩화를 통해 오래된 현재를 사유하는 방식이 있다. 이를 위해 2부는 한국인에게 익숙한 『삼국유사』 신화가 연극을 통해 사유하는 현실 관객의 태도와 그리고 관객의 기억과 경험으로 생생하게 기술되어 있다. 특히 저자가 2부를 <수로부인> 설화를 재해석한 연극 <꽃이다>를 시작으로 정신적, 영적 아름다움에 대한 사유하는 철학적 경험에 대해 서술한 부분은 매우 인상적이다. 저자는 이 공연을 무한한 시간성이 느껴지는 심미적인 무대를 통해 시적 대사, 찰랑이는 물과 다양한 오브제의 물질성, 세련된 시청각적 이미지, 역동적인 배우들의 움직임을 통해 관객의 현실에 ‘살아있는 신화’로 만든 현장을 생생한 공연감각으로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 일부를 인용해 본다.

수로(水路)라는 이름을 형상화한, 사면의 무대를 둘러싼 물길의 바닷가 마을의 분위기를 표현했다. 물 위에 놓인 녹슨 철판, 무대 후면에 탁본 벽화를 배치하여 천년의 세월을 시각화했다. 천여년 전의 신라라는 시공간의 환기와 더불어 권력의 무상과 시간의 영속성을 사유하게 만든 무대미술이었다. 객석과 무대 사이에 놓인 도우들은 관객이 신라인이 되어 현장에 참여하거나 혹은 거리를 가지고 지켜보는 현대인의 위치를 일깨우기 위한 오브제였다. 악사와 날렵한 무사 역할을 오가며 신체적 에너지와 음악성을 보여준 배우들의 앙상블, 탐미적인 아름다움과 질박미를 보여준 의상, 시각적 장면만들기는 이 극의 ‘아름다움’이란 주제를 더욱 부각시켰다. 아리의 죽음도 유명한 ‘오필리아의 익사’ 그림처럼 수로에 떠 있는 심미적 이미지로 연출되었다.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욕망, 아름다움이 곧 세계의 본질이라는 사유가 탐미적 무대와 연출로 시각화된 것이다¹¹⁾.

이외에도 삼국유사의 에밀레종 설화와 해공왕 설화를 재창조한 <남산에서 길을 잃다> 연극 공연의 패션쇼 런웨이 무대를 통해 관객들이 다양한 차원을 경

11) 김성희, 앞의 책, 320쪽.

험하도록 한 연출 감각, 즉 신화의 현재적 감각은 김성희의 저서 2부에 섬세하게 기술되었다. 2부에서 저자는 이렇게 신화를 현대사회의 감각에 새롭게 배치하여 현대인의 삶과 신화적 삶의 맥락이 공존하는 연극 감각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소통하는 시대정서와 감각들을 전달했다.

5. 신화의 인류문화 생태학적 가치

지금까지 한국 신화에 대한 흥미로운 인식을 보여준 연구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이런 시기에 『연극으로 사유하는 한국 신화』를 만난 것은 기억할만한 순간이다. 이 저서는 한국신화에 담긴 문화원형을 동시대의 살아있는 경험으로 재구성한 창작연극에 대한 궤적을 그렸다. 놀라운 점은 더 있다. 저자 김성희가 신화를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의 원형이자 유기체처럼 인식한다는 사실이다. 신화를 생명성 있는 존재로 설명하며, 연극예술토양에서 ‘증식, 분열, 변모, 유동하는 생명력이 있는’ 존재라고 말한다. 생명력 있는 신화를 재구성한 연극을 근거로 기술한 『한국연극으로 사유하는 한국신화』는 그러므로, 한국 신화에 관심 있는 대중들에게 ‘존재, 성장, 탐색, 사랑, 시련, 죽음, 순환’이라는 7개의 키워드로 신화를 경험할 수 있는 안내서로서 보기 드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희곡, 문학, 문화콘텐츠 등 창작에 필요한 원형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의 아카이브 역할도 제공할 수 있다. 1부의 일곱 가지 신화 모티브 핵심어와 신화와 연극의 스토리텔링 구조는 일종의 문예창작교육을 위한 훌륭한 지침을 안내해 준다.

『연극으로 사유하는 한국 신화』는 신화와 연극의 관계를 신화의 재창작을 상호텍스트적, 상호문화적 대화주의 관계에서 파악하거나 원전 혹은 원형 콘텐츠와 그 표상으로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미신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영적 가치를 잃어버린 현대인에게 신화적 사유와 상상력으로 존재론과 유대감을 경험할 수 있는 철학적 사유 틀도 제안하기 때문이다. 신화가 인류문화의 생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저자의 관점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다.

참고문헌

- 김성희. 「신화적 상상력과 연극성의 놀이 <처의 감각>」. 『연극평론』89호. 서울: 한국연극평론가협회, 2018.
- _____. 『연극으로 사유하는 한국신화』. 서울: 연극과인간, 2021.
- 신현숙. 「신화와 공연예술(1) - 신화 재창작과 소재 탐구-」. 『연극평론』78호. 서울: 한국연극평론가협회, 2015.
- _____. 『한국 그리스 신화 비교와 비극의 무대』. 서울: 연극과인간, 2018.
- Denning, Stephen. 안진환 옮김. 『스토리텔링으로 성공하라』. 서울: 을유문화사, 2005.
- Goffman, Erving. 진수미 옮김. 『상호작용 의례-대면 행동에 관한 에세이-』. 서울: 아카넷, 2008.

접 수 일 : 2021년 11월 11일

심사기간 : 2021년 11월 12일~2021년 11월 15일

게재결정 : 2021년 11월 15일